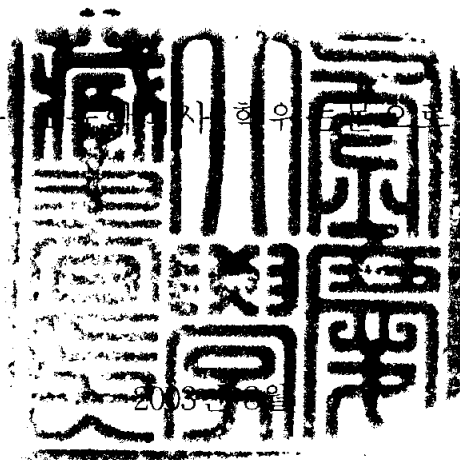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 연구

지도교수 조 동 구

이 논문을 위해 사 학 위 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홍 상 순

홍상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일

주 심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강 인 수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 차례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대상	6
II. 시 창작교육의 대중가요 수용의 의미	9
1. 현행 시 창작교육의 문제점	9
2. 시 창작교육과 대중가요와의 관련성	11
3. 시 창작교육의 대중가요 수용의 의의	16
III. 대중가요 패러디와 시 창작교육	18
1. 시 창작교육에서 패러디의 효과	18
2.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의의	20
IV.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지도 방안	27
1.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 지도 원리 및 유의점	27
2.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 개발	31
3.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 적용	36
4. 기대되는 효과	64
V. 결론	67
※ 참고문헌	70

<표차례>

<표-1> 일반적 시 창작 지도 모형	32
<표-2>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	33
<표-3> 패러디의 소통 과정	34
<표-4> 주제-응답의 양식	49
<표-5> 악곡구조와 노랫말구조의 비교	51
<표-6> 혼성모방 패러디 시 쓰기 과정 I	56
<표-7> 혼성모방 패러디 시 쓰기 과정 II	62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Creation of Poetry
through Parody Popular Songs**

Sang-soon ho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d teaching creation of poetry through parody of popular songs for adolescents as an alternative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blems. It is TV show where young singers appear that the program the young men of these days like and enjoy. Students love their pop music as much as singers' passionate dancing, and enjoy it. And that is controlling their thought and emotion as the core of their culture. And today popular songs have the feature that a lot of genre is mixed in a song. It shows the special features of the image popular music that is listening, seeing and moving sides. Their songs shows the aspects of mixed genre as an synthetic art. And they shows the various properties of modern art - poetic, dancing, talkative, dramatic and colloquial factors and so on - that excel genre.

Further more, the latest popular songs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opular songs because they have diversity about the world view or attitude which we recognize our lives. As Lee youngmi referred, "they shows creative writers' objective and subjective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the world, and creative writers are developing them by themselves on the subject of their own main problem." That is caused by singers' personality and originality, who are trying to deviate from the transcendent and ideological range of the former ages.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d a possibility of teaching creation of poetry through parody popular songs for adolescents. When students write a

parody poem, teachers must present well known songs for adolescents as an original texts. The original texts need not to be limited to use the words, but need to use all devices as a playing arts.

To create a poetry through parody, students interpret the original text in the first place. Next expand meanings by assimilation and defamiliarization, and plan the plot of parody poem by self-reflective elaborating. Last, they write the parody poem by formulating all ideas. In the process of writing parody poem, students must consider the words of popular song as a music, and the properties of poetry as an art of language.

I categorize the methods of teaching creation of poetry through parody popular song to 4 types. The first parody of imitative borrowing that expand meanings as following the main theme of original text. The second is parody of critical modification that create a new poem by modifying and inversion the original text. The third is parody of pastiche that create a new poem by cut and paste two or three original texts. And the last is parody in cyberspace that write a poem with computer and internet.

Creation of poetry through parody popular songs for adolescent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related with many concepts of modern literary criticism. For example, inter-textuality, self-reflection, meta-composition as a writing open texts, and critifiction, etc. And it related with reader-responder theory and social-constructivism, also. So, it is a good method of teaching poetry in post-modern ag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의 문학 교육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며, 창작은 그 범주에 들어 있지 않았다. 즉, ‘창작’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작가의 전유물로 여기고, 주어진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만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세련시키고 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문학 교육의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런데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창작’을 문학 교육의 범주 안에 수용하고 그 교육 내용을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대한 태도’로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창작’의 의미는 문예창작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 대한 능동적 반응을 강조한 것으로 문학적 표현 활동을 의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 즉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모든 창조적 학습 활동을 창작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문학 교육에 있어서 창작 활동은 문학적 체험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며, 작품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초보적으로나마 창작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분명히 증진된다²⁾는 관점에서든 7차 교육 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문학 교육의 입장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 창작교육은 시 창작교육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 학생들이 한 편

1)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31면.

2) 이상섭, 「문학공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세계의 문학』 통권74호, 1994, 24~25면.

의 시를 짓는 작업은 단순한 문학적 활동이나 국어교육의 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장기에 있어 한 편의 시는 인간 형성의 측면에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사물을 보고, 느끼고,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자기 특유의 표현이나 개성적인 목소리를 문학이라는 양식으로 담아내도록 하는 사고력의 훈련은 장차 성인이 되었을 경우, 자신의 모든 사유의 바탕과 힘으로 연결되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과 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가장 사고력을 응축하고 표현력을 함축한 문학 예술로 인간 형성에 원초적인 꿈과 사상을 가꾸어 주는 문학적 기층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렇듯 시의 본질에 접근하여 진정으로 시를 향유할 수 있으려면 시의 감상과 더불어 시 창작에 대한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 교육은 지나치게 시의 형식성을 강조하여 시 쓰기 초기 단계에서 시적인 자유로운 발상을 억제하였으며, 시는 고도의 정제 기능이 필요한 상당히 쓰기 어려운 것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주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시 쓰기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시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시 쓰기가 어렵고 재미없는 글쓰기라고 여기게 되는 문제점을 파생시켰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 대안으로 학생들이 즐겨 듣는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보는 것이 바로 신세대 가수들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생들은 가수들의 열렬한 몸동작 만큼이나 그들만의 대중음악을 사랑하고 이를 즐기고 있으며, 그들 문화의 중심 축으로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그

3) 이상현, 『아동문학 강의』, 일지사, 1991, 23면.

리고 요즘 대중가요는 하나의 노래에 여러 가지의 장르가 혼용되어 있고, 보고 듣고, 움직이는 영상 대중음악의 특징적 요소를 잘 드러낸다. 이러한 대중가요는 종합예술로서의 복합된 장르의 양상을 보여 주는데, 음악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시적인 요소, 무용적인 요소, 사실적인 요소, 드라마틱한 요소, 회화적인 요소 등 탈장르적 개념을 지니는 현대 예술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낸다.

나아가 최근의 대중가요는 삶을 인식하는 세계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다양함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유행가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 이영미는 "대중가요의 창작자들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객관화되고 자각된 인식·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창작자 스스로 이를 자신의 주요한 사유의 과제로 삼아 발전시키고 있다."⁴⁾ 라고 했다. 이는 무엇보다 전대의 고답적이고 관념적인 관행적 차원을 벗어나려는 가수들의 개성미와 독창성의 발로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삶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는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 교육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창작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범위를 시 텍스트로 한정하면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간혹 시 짓기 방법에 관한 연구⁵⁾가 있었으나, 시 교육이 텍스트의 해석 방법 쪽으로 성격이 고정되면서

4) 이영미, 「문학과 대중가요」, 『문학과 교육』 제9호 문학교육연구회, 1999.

5) 김명식, 「창작기능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윤한택, 「시짓기 중심의 시학습 지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텍스트의 생산은 한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근에 다시 문학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창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⁶⁾ 그러나 그 필요성은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면서도 이론적 측면에 대한 보완과 구체적인 방법론의 차원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지는 못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창작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나 전망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⁷⁾ 다만 긍정적인 것은 그 동안의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 차원에서 창작교육의 실행태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대중가요 텍스트를 문학영역으로 수용의 가능성을 밝히고 국어교육에의 적용을 시사한 논문으로는 이영미의 글⁸⁾과 김창원의 글⁹⁾이 있다.

이영미는 대중가요를 시가문학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분석하고 감상하여 시가문학의 특성을 배우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보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를 살펴보고 있다. 그 하나는 비유나 이미지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운율의 관점이다. 시가문학으로서의 전통시는 특히 운율면에서 리드미컬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나, 반해서 대중 가요에서는 운율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의종, 「중등 국어 시 영역의 공감각 표현지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6) 창작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최두석, 「창작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김은진 외, 『현대시 교육론』, 시와 시학사, 1996)’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시 창작교육의 방향을 시 창작교육 담당자 개개인의 창의적 모색에 넘김으로써, 창작교육이 담당해야 할 많은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창작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창작교육의 거시적이며 이론적인 차원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 7) 광동훈, 「시 맛보기 지도의 원리와 방법」, 배달말 교육 제19호, 1998.
서영호, 「시 흉내내어 짓기 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유영희, 「메타언어적 시쓰기와 창작교육의 가능성」, 선청어문 23집, 1995.
- 8) 이영미, 앞의 글.
- 9) 김창원, 「대중가요의 국어교육론」,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가을 학술 발표대회, 2000.

다.¹⁰⁾ 나아가 그는 90년대에 유행하는 신세대 가요 가운데 힙합이나 랩스타일의 노래들이 압운(押韻)을 이용한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창원도 어려움은 있지만 대중가요 현상을 국어교육에서 포용력있게 받아들여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중가요가 국어교육학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대중가요가 지니는 ① 국어교육 철학, ② 국어교육 심리학, ③ 국어교육 사회학적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틀을 표층의 언어 차원, 심층의 의사소통 차원, 포괄적인 문화적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가요를 포괄적인 국어현상의 일부로 보고, 대중가요의 언어적 측면만을 강조해서 보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앞의 두 연구가 대중가요의 국어교육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고찰이었다면, 문광영의 연구¹¹⁾는 대중음악 텍스트를 활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탐색을 논하고 있어 좀더 방법론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석이 대중음악 텍스트를 통한 것이 아니라 기성 시인의 패러디 시 작품에 대한 분석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의 토대 위에, 실제 대중가요 텍스트를 이용한 시 창작 지도 방안과 그것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10) 가령 <소양강 처녀>, <남행열차>와 같은 트롯 가요가 계속 애창되는 이유는 노랫말의 그리움이나 이별의 정감보다 노래 전체의 느낌이 경쾌함과 흥겨움을 주는 말 맛 때문이라고 한다.

이영미, 앞의 글, 227~231면 참조.

11) 문광영, 「대중음악 텍스트 활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논총』, 인천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8권 1호, 2000.

3.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논문은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우선 II장에서는 현행 시 창작교육의 문제점을 살펴 봄으로써 기존의 시 창작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감과 시 창작을 어렵고 따분한 활동으로 오인하게 하는 역작용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중가요를 시 창작교육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시 창작교육의 대중가요 수용의 의의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패러디의 개념과 기능을 통해 패러디의 시 창작교육적 효과와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의의를 현행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살펴 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실제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지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의 지도 원리와 유의점,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패러디의 세 가지 방법에 따라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을 살펴 본 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학교급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¹²⁾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 7학년부터 9학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중학교 1학년~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12)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31면.

현행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에는 대중가요를 비롯한 대중문화와 관련된 학습활동의 예13)가 ‘대중매체와 문학의 접목’ 또는 ‘문학과 인접예술과 관계’라는 부분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으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예14)가 드문 실정이다. 더욱이 고등학교에서는 문학과 대중문화와의 관련, 시와 음악의 관련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교수·학습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대중가요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수용은 고등학교 이전부터 여러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가요를 비롯한 대중문화에 대한 교육은 고등학교 이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대중문화의 교육적 수용은 대중문화를 가장 활발히 접할 수 있는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무분별한 대중문화 수용을 막고, 교육적인 적용을 통해 비판적으로 대중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다. 그리고 대중가요는

13) ① 대중가요 중 가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한편을 선택하여 다음활동을 해보자.

-고등학교 국어(상)의 6단원 ‘노래의 아름다움’ 중에서

② 다음은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고등학교 국어(하)의 4단원 ‘효과적인 표현’ 중에서

③ 텔레비전을 통해 (가)와 (나)를 노래말로 하는 가요를 들려 주려고 한다. (가)와 (나) 의 노래말의 특성상 배경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야기 해보자.

-고등학교 국어생활(교학사) 4단원 ‘대중매체와 국어생활’ 중에서

④ 대중가요가 대중적 인기를 쉽게 얻는 것을 가사와 곡조 두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고등학교 문학(디딤돌) 1단원 ‘문학과 문화’ 중에서

⑤ 시를 낭송할 때와 노래로 부를 때를 비교해 보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어떤 음악이 시적이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우리 현대시 중, 대중 가요를 노랫말로 활용한 경우를 찾아서 발표해 보자.

-고등학교 문학(교학사) 1단원 ‘문학과 문화’ 중에서

14) 요즈음 유행하는 노래의 가사를 적어 보자. 불필요하게 쓰인 외국어나 외래어, 비속어를 지적하고, 우리의 국어생활을 반성해 보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생활 4단원 ‘국어 생활의 반성’ 중에서

자아 정체성 형성의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몰입과 공감에 의한 정서 이완이나 대리경험을 통한 인지적 변화를 가능케 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세계를 해석하는 눈을 길러 줄 수 있다. 또한 10대 학생들에게 친숙한 대중가요 텍스트의 수용은 시 창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동기유발 차원에서도 유익할 것이다.

Ⅱ. 시 창작교육과 대중가요 수용의 의미

1. 현행 시 창작교육의 문제점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일은 시가 지닌 형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시가 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감동이 우선이다. 학생들의 시는 대부분 시적 기교나 수사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의 완성된 문학작품으로 보기에 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학생들의 작품을 시의 형식미만을 따져 볼 때는 잘 썼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 깨달음 등을 꾸밈없이 나타냈다면 거기서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시의 본질에 접근하여 진정으로 시를 향유할 수 있으려면 시의 감상과 더불어 시 창작에 대한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교육은 시감상 위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시창작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시 창작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시의 형식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시적인 자유로운 발상을 부단히 억제하였고, 시는 고도의 정제 기능이 필요한 상당히 쓰기 어려운 것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주었다.¹⁵⁾

둘째, 시 창작에서 단계적 지도 절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의 시 창작 지도는 소재만 정하여 주고 무작정 쓰라고 한다든지, 산문을 써 놓고 이를 짧게 줄여 행과 연의 형식을 갖춘 짜맞추는 식의 시 창

15) 방인태, “국어교육과 시의 상호성”,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4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98, 81면.

작을 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셋째, 시 창작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 방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무엇을(글감) 어떻게 써야 할지(창작 방법)를 모르겠다는 학생들의 질문에 스스로 잘 생각해서 써 보라고 할 뿐, 그들이 시상을 떠올리거나 떠올린 시상을 시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시 창작이 어렵고 재미없는 글쓰기라고 여기게 된다. 또한 시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일이며 범인들이 이를 흉내내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시 창작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비단 시뿐만 아니라 문학의 모든 장르들이 실은 예전에 들던 할머니의 다정한 얘기가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즐겼던 보통 사람들의 언어생활¹⁶⁾이 문학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배움을 잡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많은 이야기와 그들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또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중문화 역시 우리 사회의 삶을 표출하는 문학의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야기를 즐긴다. 이 이야기들은 재미를 바탕으로 인간들의 사는

16) 김대행(1993)은 대여섯 살쯤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많은 질문들을 문학 언어의 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

“비는 누가 만들어?”, “구름이 만들지?”

“구름은 누가 만들어?”, “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지?”

“물은 누가 만들어?”, “그건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지?”

“수소와 산소는 누가 만들어?”, “그건 하느님이 만들지.”

“그럼 하느님은 누가 만들어?”

이내 말이 막히던 그 술한 질문들... 즉, 문학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 그러나 까마득히 잊고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쓰는 말로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다르지 않다.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를 즐기기도 하지만 거기서 인생을 터득하기도 하며, 세상을 알게 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문학(시)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생활 속에서 시를 가까이 하여 즐기고 시를 쓰는 것이 결코 어렵거나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기꺼이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2. 시 창작교육과 대중가요의 관련성

그동안 국어나 문학 교과에서는 대중매체나 대중음악을 텍스트로 삼는 시도를 철저히 배제시켜 왔다.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적대적인 태도로 견지해 왔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바탕에는 “대중음악은 저질이며,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획된 싸구려 문화”라는 인식이 있다. “감성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언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미지 중심의 대중매체로서 국어교육이나 문학교육은 할 수 없다.”고 보았던 점이다. 또한 오랫동안 대중가요는 ‘저급 예술’이라는 지배적 논리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무엇을 강하게 부정하려면 그 정당성이 제시되고,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데도 부정적으로 내려 몰아칠 만큼 관심을 갖고 내적 측면에서 연구한 성과도 없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는 21세기의 문명사회에 처해 있고, 또 매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시대적, 문명적 삶을 외면할 수 있는가. 당대의 대중적인 산물들을 패러디 하면서도 시니컬한 어조로 이를 다시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고정관념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과연 21

세기를 맞이하는 이 땅의 서정시가 언제까지 18세기나 19세기의 자연을 노래하고, 전근대적인 아름다움만을 읊어야만 하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순간에도 대중음악과 같은 매체지향적 문화는 우리 학생들의 일상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으며, 일상사 일부가 되어 있고, 감성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 창작교육에의 대중가요 수용의 가능성을 먼저 시와 음악의 밀접한 관련성을 토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시와 음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래(古來)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련성을 가지며 발전해 왔다. 서양에서의 시와 음악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시대에까지 소급된다. 시의 신이면서 동시에 음악의 신인 9명의 뮤즈(Muse)로부터, 시와 음악은 본디 서로 한 몸을 이루면서 발전의 도정으로 향해 나아갔다. 그리스 말로 음악을 무지케(mousikeh)라고 이르는 것도 이 여신들을 하나로 묶은 이름인 ‘뮤즈’에 의해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옛 그리스 서정시의 모체인 멜로스(melos) 또한 음의 선율을 가리키는 것처럼 시인과 음악가의 경계는 본디 모호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R. 타고르 역시 시와 음악의 관계에 대해 실천적인 해명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인도 최대의 시인이자 인격화된 신비주의의 권화(權化)였다. 그는 노벨상 수상시인으로, 또 심오한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를 일컬어 흔히 시성(詩性)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가 한때 인도의 유명한 음악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삼림학교에서 생도를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했는데 교육의 과정을 통해 강론적 교화 못지 않게 음악적 감화를 중시했다고 한다.

또한, A. 포우프는 ‘음악은 시를 닮았다’고 했고,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시를 ‘영혼의 음악’이라고 했다.¹⁷⁾

17) 송희복, “시·음악·음악성”, 『현대시』 한국문연, 1995, 1~30면.

먼 서양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고전들을 통해서도 시와 음악의 관련성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 고대작품에는 원시종합예술의 형태로 있던 시와 노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가’작품들이 있으며, 시의 제목이 “○의노래”, “△△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라의 향가(鄕歌), 고려의 고려가요(高麗歌謠)·고려속요(高麗俗謠), 조선의 시조(時調)·가사(歌辭), 일제시대의 창가(唱歌)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 등이 있었다. 또 노래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는 윽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 있었다. 시의 윽격, 잣수, 각운, 리듬 등등이 바로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러한 시들은 이미 노래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노랫말로 하여 노래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¹⁸⁾

즉, 먼 옛날부터 시와 노래는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차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시와 노래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시인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음악적인 가락을 중용하지 않으며, 음악 역시 스스로를 유지하기를 열망하여 외부로부터 오염된 관념을 벗어나고자 하거나 아니면 순수한 음감의 한계 밖에 위임된 언어에 의존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가락을 포기하거나 문학이 서정적이고도 율동적인 진술을 망각할 때마다 양자의 관계를 벗어남으로써 인한 손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시가 언어의 화음이라면 음악은 선율의 조화이다. 시가 산문과 변설의 영역을 초월하고자 하듯이 음악은 시로부터 고무되거나 항진(亢進)하고자 한다. 시와 노래는 오늘날에도 최소한의 유대감을 지닌 채 존립하고 있다.

또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 즉, 유행가(流行歌)가

18) 이건용, “시, 노랫말, 노래”, 『민족음악』 1집, 민족음악회, 1990, 185면.

있었다. 향가(鄕歌)에는 신라시대의 생활상과 풍습 그리고 그 당시의 정서가 담겨있으며, 고려가요에는 고려시대의 것들이, 시조(時調)나 가사(歌辭)에는 조선시대의 것들이 담겨져 있어, 당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국어학적·역사-문화적 자료가 된다. 이는 한 시대의 유행가들이 그 당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유행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견은 다소 있겠지만, ‘대중가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수긍할 것이다. ‘대중가요’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일반 대중의 흥미를 위주로 한 노래”(동아출판사 편., 1996; 한글학회 편., 1994)라 한다. ‘대중’은 “한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동아출판사 편., 1996; 한글학회 편., 1994)을 말한다. 이영미(1998)는 대중가요를 “근대 이후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면서 나름의 작품적 관행을 지닌 서민들의 노래”라고 정의하였다. ‘서민’이라는 용어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라는 의미에서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대중가요는 근대 이후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면서 나름의 작품적 관행을 지닌 서민들의 노래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중가요는 근대 사회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전근대 시대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서민들의 노래인 민요와 달리 도시의 대중들을 그 주요 수용층으로 삼는다.

둘째, 음반매체나 방송매체 등 대중매체를 그 전달매체로 삼고 있으며, 그 창작자와 작품의 원류가 분명하다.

19) 조윤동, 「대중가요 가사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3면.

셋째, 대중가요는 주로 남녀간의 사랑을 비롯한 사적(私的)인 인간관계를 내용으로 주로 다루고,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작품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넷째, 대중가요는 상층 귀족이나 엘리트의 예술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향유하는 서민문화(popular culture)에 속하며, 따라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이다.

다섯째, 고급예술 작품의 향유가 마치 큰 지적인 긴장과 때로는 고통스러운 각성을 동반하는 행위로 정신노동이나 교육에 버금가는 행위라면(물론 이 역시 휴식과 즐거움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가요는 수용자들에게 일종의 오락의 대상이다.

여섯째, 문학의 경우 문체라고 할 만한 측면이 지니는 중요성이나 형식과 내용을 포괄하는 작가의식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 그에 비해 서민예술인 대중가요는 개인적 스타일이나 문체 혹은 작가의식에 비해, 당대 수용자 대중들에게 익숙한 양식이 더 중요하다.²⁰⁾

이러한 대중문화로서의 대중가요의 특징뿐만 아니라, 문자로 쓰여지는 시 텍스트와 음악 텍스트의 비교에서도 그 차이점이 드러난다. 우선 운율면에서는 음악 텍스트가 훨씬 강하지만 이미지와 비유 등 언어 구조는 시 텍스트가 강하다. 이는 한 마디로 노래와 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짧은 문장 안에 정서적 의미를 압축해 넣고 비유와 이미지 등으로 고도의 수사법으로 처리되는 시 텍스트는 시각적으로 행과 연을 읽어나갈 때 시간의 차이를 둔다. 반면에 가요 텍스트는 한 소절 씩 음율을 통해서 경과되는 시간을 피드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흘러가는 시간에

20) 중요한 것은 대중가요에서도 작가의 작가의식이란 의미 있을 수 있으며,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고급예술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작품과 세계와 수용자와 양식들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발전시키는 작가는, 확립화되기 쉬운 대중예술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힘이다.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1999, 17~24면.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만을 담게 된다.

또한 시 텍스트는 낯설은 언어와 파격성으로 어느 정도의 지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독자나 창작자 모두 어느 정도 부담감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음악텍스트는 어찌 보면 익숙하고 편안한 텍스트이다. 그것은 음악텍스트가 경쾌하며, 오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나 수용자에게 부담감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 예술인 가요 텍스트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면서 보편적 인식과 욕망, 취향의 정서를 담고 있다. 나아가 유행가로서 시대의 문화적 추세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되고 소멸이 되면서 변이의 양상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가요 텍스트의 패러디 시로의 수용은 진지한 문학 언어에 간혀있던 문학관을 뚫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정서, 취향에 따라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다.

3. 시 창작교육의 대중가요 수용의 의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중가요는 가사라는 언어예술적 측면과 악곡이라는 음악 예술적 측면이 결합된 예술로서 서로 상호 침투하므로 국어 텍스트적 의미가 크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정서적 예술이 바로 대중가요이다. 실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방송음악’에 대한 질문에서, 가요 76%, 팝송 10.2%, 가곡 4.7%, 국악 3.4%, 기타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풍이나 오락시간에 즐겨 부르는 노래’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대중가요 79.0%, 가곡 7.7%, 광고노래 6.0%, 기타 4.3%, 팝송 3.0%의 순으로 나타났다.²¹⁾ 이는 대중가요

21) 김혜경, “TV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민족음악학회 19호, 2000, 244~266면.

가 우리 학생들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가요의 시 창작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가요는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노래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일 뿐 아니라, 노래를 둘러싼 문화 현상 또한 텍스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대중가요를 일종의 복합 텍스트로서 받아들이고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포괄적인 텍스트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대중가요의 수용은 음악이란 예술과 시라는 문학장르가 만나 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하나로 시적 장르의 특성이 학습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연스럽게 음악과 시의 변별점과 공통점을 학생들은 알 수 있게 된다.²²⁾

셋째, 대중가요 텍스트의 가사나 어조, 운율의 차용을 통해 학생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시 창작을 시도할 수 있다. 대중가요 텍스트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차용해서 거기에 학생들 자신의 생활경험이나 일상적 내용을 주제로 바꾸면 비교적 간단하게 한 편의 시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대중 가요 텍스트가 지닌 풍부한 운율적 요소를 통해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따분하고 지겹게만 들리던 시의 형식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된다.

22) 김창원, 「국어교육과 대중가요」, 『국어교육』 104호, 2001, 6면.

Ⅲ. 대중가요 패러디와 시 창작교육

1. 시 창작교육에서 패러디의 효과

패러디(parody)는 일찍이 서양에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 그렇지만 동양에서도 ‘借古喻今’이라는 말이 있듯이, 패러디와 유사한 시 창작 기법이 존재했었다. 패러디의 어원은 그리스어 ‘parodia’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a song sung beside’ 즉 “다른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불려진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²³⁾ 이보다 더 오래된 낱말로 추정되는 ‘paradio’는 “모방하는 것, 모방하는 가수”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어원적 의미로 살펴보면, 패러디는 과거의 원전을 ‘비평한다’는 뜻과 함께 과거의 원전을 ‘모방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패러디는 ‘반대’와 ‘모방’, 혹은 ‘적대감’과 ‘친밀감’이라는 상호모순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²⁴⁾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은 설레겔에 오면은 패러디를 ‘대상으로부터 의존하면서 동시에 독립되어있는 것’이라고 하여 양면성의 가치를 확고히 하였지만, 대체로 두 가지 범주 중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제임스(F. Jameson)이 주장했듯이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로 ‘조롱하거나 희화화’ 시킨다는 좁은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와 텍스트간의 ‘반복과 다름’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점이다. 전자는 전통적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을 위

23) 린다 허천(김상구·윤여복 공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3.

24)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238면.

해 쓰여졌던 시적 장치라 할 수 있고, 이에 반해 후자는 과거의 문학작품이나 관습에 자신의 모양을 비추어 봄으로써 고갈된 문학형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폭넓은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특정한 작품의 ‘풍자적 모방으로서의 개작’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후자는 ‘다성성(polyphon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메타픽션(metafiction), 혼성모방(pastiche) 등과 같은 포괄적인 관점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²⁵⁾

가장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원전의 풍자적 모방’ 또는 ‘원전의 희극적 개작’으로 정의된다. 더욱 좁은 의미로는 특정한 원전의 진지한 소재나 태도, 또는 특정 작가의 고유한 문체를 저급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주제에 적용시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이와 같이 패러디에 있어서 풍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의는 고전적인 정의이다. 위에서 말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해야지 패러디의 개념은 규범적인 좁은 의미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좁은 개념에서 패러디를 본다면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조롱하거나 희화화’ 시킨다는 의미에 그치지만, 넓은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텍스트와 텍스트간의 ‘반복과 다름’이라는 의미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대시에서도 여전히 고전적 정의에 따라 풍자적 요소를 주로 하는 패러디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특히 20세기 후반 들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패러디는 이전의 패러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패러디를 정의하는데 있어 후자의 입장으로서는, 즉 패러디를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재 정의함으로써 패러디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함이다.

25) 정끝별, 「한국현대시의 패러디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7면.

26) M. H. Abrams, (권택영·최동호 공역), 『희작』, 1985, 291~292면.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기능들에서 다음과 같은 패러디의 유용성 및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패러디는 원 텍스트의 몇몇 시어나 어구 혹은 문장으로 최대한의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표현 방법이다. 즉 원 텍스트의 복잡한 문맥이나 관련상황을 축약시켜 제시할 수 있는데 원 텍스트와의 유사점을 강조할 수도 있고 대조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패러디는 원 텍스트의 내용을 환기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극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둘째, 패러디는 독자의 설득력을 유발하는 전달 방식이다. 원 텍스트가 가진 익숙함을 근거로 독자의 친밀감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패러디 텍스트를 합리화·정당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이미 그 허구성이 폭로된 원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인용함으로써 패러디스트의 생각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 패러디스트는 자신의 경험·생각·정서를 원 텍스트에 견준으로써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혹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원 텍스트를 빌려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완곡한 표현이 현실비판으로 전화될 경우 과거의 사실을 빌어 우회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알레고리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²⁷⁾

2.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의의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삶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는 정서적 예술이 바로 대중음악이다. 학생들의 삶에 있어 음악은 곧 생활에 가깝다. 이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독 우리 민족은 누구든지 이를 좋아하고, 즐겁게 참여하며 향유한다.

27) 정끝별, 앞의 논문, 11면.

정말로 대중음악이야 말로 청소년이나 중·장년 나름대로 모두가 긴장을 풀고 위안을 받으며, 감동을 얻는 오락성의 문화로 대중 예술의 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음악은 한 사회를 살아가는 문화적 구성체로서 누구든 예외없이 향유하고 익히게 되는 지배적인 문화이자, 대다수의 대중들이 향유하는 서정 예술로 존재한다. 특히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노래 듣기를 좋아하고 즐겨 불러 왔다. 그리고 술한 역경과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노래로서 이들을 극복해 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문학교육이 활동중심에 초점을 둔 다양한 텍스트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견지에서 대중가요 텍스트의 시 창작적 수용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대중가요 텍스트는 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내용면에서도 부합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국어 능력 향상을 중시’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창작’에 관한 내용을 확충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6차의 경우 시 쓰기 같은 단원이 없었는데 7차의 경우는 이것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다.

현행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반영하기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창작교육의 도입이다. 문학 영역의 창작 지도에서 ‘문학 작품을 개작, 모작, 생활 서정의 표현 등 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돕는 활동’을 포함하여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학 창작이란 수준 높은 작품 창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기와 쓰기, 문학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 교육도 ‘수용과 생산 결합의 원리’를 통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

과 창작을 각각 분리시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 과정을 결합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것에 구현되어 있는 작가들의 표현 방식을 추려내고, 그것을 학습자 자신의 표현방식으로 전이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⁸⁾

대중가요 텍스트를 이용한 패러디 시 쓰기를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연결시킬 때, 직접 연관되는 항목을 선정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⁹⁾

비유의 방법으로 글을 쓴다. [5-쓰-(7)]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찾아 고쳐 쓴다. [5-쓰-(8)]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넣어 글을 쓴다. [2-문-(3)]

알맞은 제목을 붙여 글을 쓴다. [4-쓰-(6)]

작품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한다[4-문-(2)]

작품의 구성 요소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4-문-(3)]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2-문-(1)]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는다. [5-문(3)]

28) 손은희, 『패러디를 이용한 시 창작교육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3~19면.

29) 교육부, 위의 책, 33~112면.

작품의 일부분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쓴다. [5-문-(5)]

글에 나오는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6-읽-(6)]

작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음미한다. [6-문-(3)]

작품에서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한다. [6-문-(5)]

작품을 다른 갈래로 표현한다 [6-문-(6)]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여 읽는 태도를 지닌다.
[(6-문-6)]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7-쓰-(4)]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
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7-문-(7)]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특징
과 효과를 파악한다. [8-문-(2)]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관과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관련
지어 이해한다. [8-문-(5)]

여러 갈래의 글을 쓴다. [8-문-(6)]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조직 방식을 조절하여 글을 쓴다.

[8-쓰-(3)]

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9-문-(3)]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파악한다. [9-문-(4)]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9-문-(5)]

작품 세계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9-문-(7)]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 [10-쓰-(2)]

창의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10-쓰-(6)]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 [10-문-(3)]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10문-(4)]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10-문-(5)]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10-문-(6)]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항목별 내용을 보면 역시 문학 영역과 쓰기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읽기 영역은 한 항목만을 제시했지만, 여러 읽기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패러디 시 쓰기는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의 과정, 곧 '원 텍스트의 이해 - 패러디 창작자의 개입 -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비평의 개념까지 수반되어지므로 총체적 국어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패러디 시 쓰기는 대중음악 텍스트라는 매체를 통하여 의미를 확장하여 쓰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학교육 차원을 훨씬 뛰어 넘는다. 그리고 모든 글쓰기가 그러하지만, 특히 대중 매체에 바탕을 둔 패러디 시 쓰기는 수용과 창작이라는 점에서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적시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능동적 글쓰기'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미 패러디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는 우리의 옛 문필가나 현대 작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에서 두루 글쓰기의 방법으로 원용되어 왔다. 이제, 패러디는 우리의 현장 시 교육에서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다. 그 한 방법이 바로 대중가요와 같은 미디어 텍스트와 결합시켜 보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가요 텍스트가 지니는 시 창작교육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대략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중음악도 하나의 사회적 담론이다. 특히 대중음악과 같은 매체 지향적 문화는 일상에 널리 있는 산 교재로, 자발적으로 접근되어지며, 다양한 분야와 조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중 음악이 지니는 접근의 용이성, 일상성, 다양성은 대중매체의 수용자로서 이미 우리의 사고와 정서에 개입하고 있어 삶의 맥락이 학습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둘째, 대중가요의 패러디적 수용은 사회구조의 변천과 역사에 대한 민중 의식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왜냐하면 대중가요 속에는 자기

반영성과 더불어 당대현실의 문제나 사회적 고뇌, 민중의 심리 내지는 가치 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셋째, 패러디는 원전에 대한 모방의 형식이면서 해석의 형식이고, 또 비평의 형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패러디의 수용과 생산은 열린 텍스트로서의 다양성(polyglossia)이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메타시(metapoetry)나 메타픽션(metafiction), 크리티픽션(critifiction)과 같은 현대 비평용어의 지향점과 맞물려 문학적 체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넷째, 대중가요 텍스트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텍스트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내용면에서도 부합된다. 특히 문학영역에서 무엇보다 창작에 관한 내용을 확충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7차에서는 장르간의 경계침범, 그러니까 동화를 시로, 시를 소설로 바꾸어 써보는 메타적 글쓰기와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기가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패러디 시 창작이 이러한 내용에 부합되는 활동으로서 의의를 지닌다.³⁰⁾

30) 문광영, 앞의 논문, 19~20면.

IV.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지도 방안

1.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의 지도 원리

및 유의점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 지도에서는 먼저 패러디의 조건상,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 텍스트는 원칙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³¹⁾ 처음부터 학생들의 정서적 현실을 무시한 너무 진보적이거나 무거운 주제의 가요는 지양해야 한다. 노래의 선정은 교사와 학생들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학생들의 현실을 담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가요 텍스트를 원 텍스트로 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동화(同化)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이화(異化)가 되어도 학생들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나 비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요 선정 시에는 노랫말이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은 가요나 역사나 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민중가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교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요가 있으면, 우선 수용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해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가요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³²⁾

창작 예술인 음악을 시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학생들에게 음악이 지닌 운율의 형식적 특질과 보조적 수행언어로서의 가사의 특질에 대해 이해를

31) 김준오, 앞의 책, 239면.

32) 임덕배, “우리, 생각하며 노래 부르자”, 『우리교육』, 1996, 156~158면.

시키고, 나아가 이를 언어예술로서의 이미지와 감각을 통한 정서적 예술로서의 시적 특질에 대한 안목을 지니게 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적 요소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관점에서 패러디 시의 경우 시적인 것과 비시적인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시가 지닌 언어의 참신성, 새로움의 제시, 반성적 사고 내지는 세계인식의 통찰 등 사물 존재의 새로운 발견 등 그 어떤 정서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적 특질을 살펴 볼 수가 있다.

또한, 대중음악 자체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다. 대중음악 텍스트는 청각예술이자 음률예술, 곧 멜로디, 리듬, 화성이라는 3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음악 고유의 장르적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언어예술과는 다른 점이 있다.³³⁾ 말하자면 패러디 시가 언어만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 연장선에서 보면 음악의 가사와만 직접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 텍스트를 꼭 노랫말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연 음악이라는 종합예술로서의 원 텍스트를 상정하여 패러디 시를 창작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 텍스트인 대중가요 텍스트를 패러디 할 때에는 가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 텍스트가 지닌 다양한 요소를 함께 아울러서 보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난 리듬의 경우, 언어로서 반복적인 것으로 드러낸다고, 의성어, 의태어로 드러낸다고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교사가 아래와 같이 기존의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작품을 소개하거나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3) 문풍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중음악」, 『학술저널』, 평택대학교 9권 2호, 1997, 553~556면.

①옛사랑이란 노래가 있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들거야

때론 그렇게, 시보다 시적인 노래가 있지

..... 중략

내가 사랑한 건 결국,

내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어

난 막연한 니히리스트가 아니야

그림자보다 더 그림자다운 나를 분명히 보았거든

그리고 텐테이블의 거둬 뒤는 음반처럼

나 지금 생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어요.

유하, 「재즈3」 중에서

위의 시는 기존 등단 시인인 유하의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작품이다. 시①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옛사랑>의 패러디를 통해 현실적 삶의 ‘위안’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가요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살면서 종종 느끼는 감정들이 대중가요에 투사됨으로써 혹은 역으로 대중가요가 현재 스스로의 감정에 투사됨으로써 지금 여기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시인은 현실적 삶의 직접적 반영으로서 대중가요의 서술성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그의 연작시 「재즈」 시편들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대중가요의 한시성, 곧 “한때 환희의 절정”을 구가하는 대중가요의 속성을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 삶에 연결시키기도 하면서 시인은 실존 의식의 영역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대중가요는 그에게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끝없는 뒤섞임과 무한한 포용력으로 삶의 구석구석까지 체험 가능하게

하는 대중가요는, 통속적 범신론³⁴⁾으로써 가능한 한 관능적이며 현실적이고 유쾌한 감정을 기도한다. 이는 곧 대중가요가 갖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인 낭만주의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중가요는 과대 망상적 나르시시즘을 초래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현대를 특징짓는 자생적 범신론의 신비주의는 지나치게 '꿈꾸며'사는 일상인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무비판적이고 유희적인 양태를 허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중가요 해독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원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여과·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롤라 김지현의 매력은 글썽, 건강한 외설스러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만만한 퇴폐성의 아름다움?

삼천만 티브이 부족은 지저귀다. 지금은 20세기말의

원시 부족 사회, 티브이 추장의 딸인 듯 김지현에게

대중의 전체는 몰입되어 있다. 눈과 귀 이전의 촉감으로

이난영에서 김지현까지, 순백의 라디오 스타에서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에 이르기까지

..... 종락

피곤한 감각을 안마한다 오오. 미디어는 마사지!

유하, 「롤라, 김지현이라는 메시지」 중에서

34) Robert Pattison, The Triumph of Vulgarity: Rock Music in the Mirror of Romanticism, 1999.

시②는 일차적으로 ‘롤라’그룹의 「날개 잃은 천사」 노래의 여파와 리드 싱어인 김지현의 조작된 상품성을 패러디로써 풍자한 것이다. 대중 스타의 이미지를 앞면에 내세움으로써 (‘씩 보기 좋음’, 좀더 정확히 말하면 감각적인 섹시함을 강조함으로써) 단순성·직접성·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성에 철저하게 호소하는 대중가요는 현대인들의 유희적 욕망을 대리 만족시켜 주는데 여간 적합하지 않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적 삶을 서술한 가사 내용의 호소력으로 인하여 대중가요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신나게 전달되어 질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³⁵⁾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중가요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고 이러한 대중가요를 패러디한 시 창작은 솔직한 현실 투사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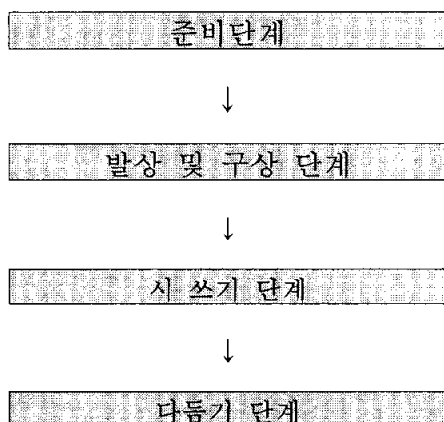
권위적이고 관념화된 언어에 대한 부정을 기반으로 정치와 폭력,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패러디는 비문학 장르를 적극적으로 시에 차용한 결과 시의 실험성과 시 형식의 개발이라는 의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시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유희성과 오락성은 패러디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의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특성이 풍자와 절묘하게 결합할 때 그 현실 비판력은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2.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 개발

일반적인 시 쓰기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단계는 시

35) 손화영,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적 상호텍스트성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80~82면.

창작을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한 준비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감흥을 불러일으킨 내용을 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발상 및 구상의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떠올린 내용을 토대로 시의 형식에 맞추어 시를 써 내려가는 시 쓰기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는 시의 내용상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드러났는지 등을 점검하는 다듬기 단계이다. 이러한 시 쓰기 단계는 선조적이지 않고 조정하기를 통하여 언제든지 그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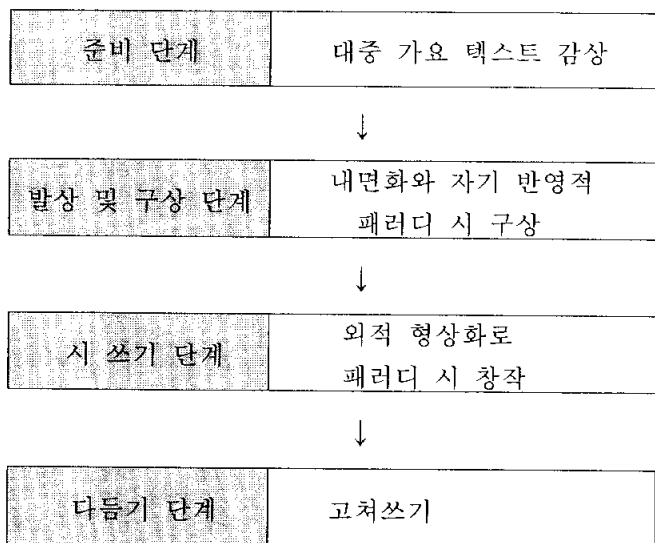
<표-1> 일반적 시 창작 지도 모형³⁶⁾

위에서 살펴 본 일반적인 시 창작 지도 모형에 문광영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중음악 패러디 시 창작 모형³⁷⁾을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시

36) 정지영, 「협동학습을 활용한 시쓰기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0~41면.

37) 문광영의 논문에서는 대중음악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을 ‘대중 음악 텍스트 해독→ 내적 동화와 이화에 의한 의미 확장→ 자기반영적 정련의 패러디 시 구상→외적 형상화로 패러디 시 텍스트 생산’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과정은 이처럼 선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

창작 모형을 개발해 보았다.



<표-2>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

준비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이며,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대중가요 원 텍스트의 감상이 이루어진다.

발상 및 구상 단계에서는 원 텍스트의 관점에 동조하여 모방이나 의미를 확장하거나, 원 텍스트에 반응하여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원 텍스트의 관점을 전복시키거나 비틀어 버리는 등의 원 텍스트가 가지는 다양성에 학생들의 자기 반영성이 복합되어 내적 정련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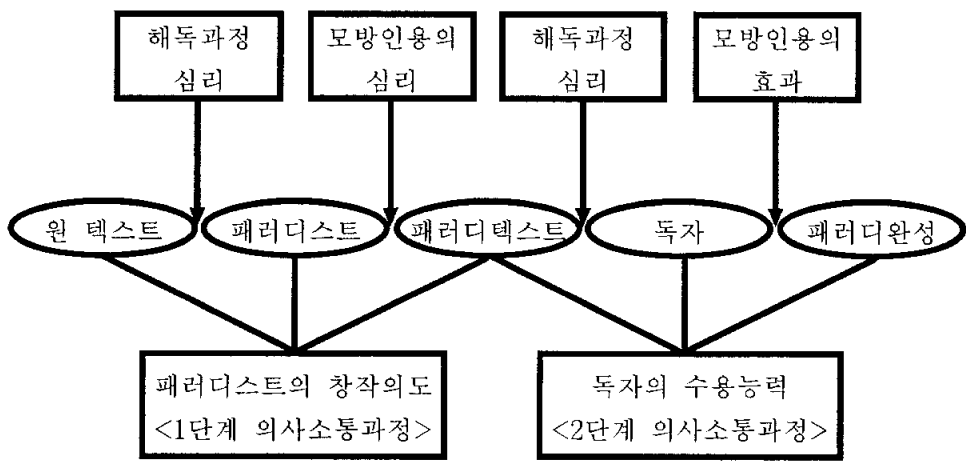
시 쓰기 단계에서는 발상 및 구상 단계에서 이루어진 패러디의 재료가 되는 언어들을 학습자 주체의 관점에 따라 외적 완성의 패러디 시 텍스트가 생산된다.

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다듬기 단계와 조정하기 단계를 첨가하여 재구성하였다.

다듬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글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인 고쳐쓰기와 최종적으로 글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편집하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시 창작 단계는 조정하기를 통하여 그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고로 작성된 시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선택된 낱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발상 및 구상 단계로 돌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의 주제를 살핀 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낱말을 찾아 대치할 수 있다. 즉, 조정하기 과정은 자신의 감흥이나 느낌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쓰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끝별의 논문³⁸⁾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러디 시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의 지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3> 패러디의 소통과정

38) 정끝별, 앞의 논문, 32면.

위의 도식³⁹⁾에서와 같이 패러디 시는 두 단계의 의사 소통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 창작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작자, 곧 원 텍스트에 대한 패러디스트의 태도이다. 즉, 원 텍스트에 대한 패러디스트(학습자)의 태도에 따라서 패러디 시 창작 방법은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형,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형, 혼성 모방에 의한 패러디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원 텍스트의 권위와 규범을 계승하는 방법으로, 원 텍스트에 호감을 갖고 원 텍스트를 계승한다. 따라서 원 텍스트에 대해 공격성이나 희극성, 비판성이 거세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의 확장에 주력한다. 가령 시어나 어구, 문장의 차원에서 모방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이나 내용적 차원에서 모방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원 텍스트의 권위와 규범을 문제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하는 방법이다. 원 텍스트에 대해 공격성과 풍자성이 강하다. 시인의 자의식이 강하게 노출되며, 패러디의 독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판권이 된다.

혼성 모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원 텍스트의 창조적 권위와 규범성을 부정하고, 원 텍스트를 대량 복제하고 과감하게 발췌 혼합함으로써 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규범을 대중화시킨다. 원 텍스트와의 유사성이 보다 직접적이고 패러디의 목적이 전락성을 띠고 있다. 복잡성, 임의성, 우연성, 무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복제적 특성과 유희적, 실험적 국면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

39) 정끝별, 앞의 논문, 28면.

3.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 적용

본 논문은 2003년 2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가야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을 토대로, 패러디 시 창작의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을 하도록 하였다.

1) 대중가요 텍스트의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

(1)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로서, 학습자들이 선정된 대중가요 텍스트를 자유롭게 감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 시 창작 방법에 대해 간단히 교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 시는 원 텍스트의 권위나 규범을 계승하거나 의미를 확장해 가는 경우이다. 가령 노래가사를 원 텍스트로 하여 시로 바꾸어 쓴다든가, 단순한 시에 대한 시 쓰기, 메타 픽션(metafiction) 같은 것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패러디 시는 내적 발화의 친화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 텍스트의 계승, 보완의 의미 확장에 주력한다. 특히 이 방법은 원 텍스트와 어떤 문맥성의 차이와 대화성을 획득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발상 및 구상 단계

발상 및 구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노래가 주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자신의 느낌과 연상되는 어휘들을 시로 나타내 보는 훈련이다. 왜냐하면 대중가요는 일정의 예술적 형식에 의탁해 있는 것이므로 심미적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교재 변용을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⁰⁾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상을 통해 원 텍스트의 어조나 운율에 동조하여 모방이나 의미를 확장시킨 자기 반영적 패러디시를 구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 시 창작에서는 노래 텍스트가 지닌 낱말이나 통사적 측면과 같은 언어구조나 내용과 같은 관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원 텍스트의 문맥의 의미를 계승, 확장하여 의미론적 풍부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 쓰기 단계

시 쓰기 단계에서는 발상 및 구상 단계에서 이루어진 자기 반영적 패러디시에 대해 구상한 것을 외적 형상화하여 패러디 시로 창작하는 단계이다. 실제적인 시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시 쓰기 진행이 막힐 때마다 적절한 방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시 쓰기의 전반적인 과정과 각 단계별 지도 방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초고로 시를 쓸 때는 문법적인 요소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며, 서툴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시를 빨리 쓰게 한다.

40) 박인기 외,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0, 54~55면.

(4) 다듬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쓴 시를 되돌아 보고 평가하는 과정인 고쳐쓰기와 최종적으로 글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편집하기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시 쓰기 단계에서 전체적인 생각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를 빠르게 쓰게 했다면,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시 쓰기에 자신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쓴 시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듬기 단계에서 시의 긍정적인 면을 서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러한 시 창작 단계는 조정하기를 통하여 그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고로 작성된 시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선택된 낱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발상 및 구상 단계로 돌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의 주제를 살핀 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낱말을 찾아 대치할 수 있다. 즉, 조정하기 과정은 자신의 감흥이나 느낌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쓰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된다.

아래에 제시된 작품은 모방적 차용에 의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패러디 시를 창작한 것이다. 위의 것이 패러디된 대중가요의 원 텍스트이고, 아래의 것이 원 텍스트를 패러디 한 학생들의 작품이다.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 시-1>

아시나요

7

얼마나 사랑했는지 A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A'
 그대 오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치 가는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한참을 서성인 나였음을 」

왜 그런 애기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아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B
 그저 아무것도 그땐 모른 채 지금처럼만 기억하면 되요
 우릴 그리고 날 」

아시나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A''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하는 병이라도 들면
 그땐 말해 볼 수 있을까요 」

- 조성모 노래/ 강은경 작사 <아시나요>41)

아시나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댈 보면 자꾸 군침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

41) 조성모 3집(2000)에 수록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대 오가는 그 부엌에 숨어

저만치 가는 냄새라도 마음껏 맡으려고 한참을 킁킁거린 나였음을

왜 그런 애기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빈속이 쓰러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저 아무것도 그뻔 모른 채 지금처럼만 기억하면 돼요

우릴 그리고 날

아시나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도 들면 그뻔 먹어 볼 수 있을까요

- 학생 작품 <배고픔을 아시나요>⁴²⁾

위의 학생 작품은 <아시나요>라는 대중가요의 원 텍스트를 모방적 차용에 의해 패러디한 것이다. 우선 원 텍스트가 ‘사랑의 아픔’이라는 주제를 여성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반면, 이것의 패러디 시 작품은 ‘배고픔’이라는 학생들의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제를 원 텍스트의 가사와 어조를 인유의 방식으로 차용하였다.

원 텍스트인 <아시나요>라는 대중가요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조성모라는 가수에 의해 불려져 학생들에게 친숙한 노래이며, 노래 구조(AABA)의 단조로움과 ‘사랑의 아픔’이라는 주제가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일으키기에 알맞은 노래이다.

42) 가야여자중학교 2학년 3반 김수진 학생 작품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 시-2>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	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 구름 솜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	여름
짧은 셔츠 짧은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 땀 피지 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너머 부는 바람	}	가을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	겨울
하얀 공장 하얀 불빛 새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 노래를 찾는 사람들/ 문승현 작사 <사계> 중에서⁴³⁾

43) 노래를 찾는 사람들 4집 (1994)에 수록

빨간 꽃 노란 꽃 운동장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책상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공부만 해야 하네 해야 하네

흰 구름 숨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셔츠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 땀 피지 땀 흐르고 또 흘러도
공부만 해야 하네 해야 하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너머 부는 바람
모의고사 시험에 밤잠 설치도
성적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공부만 해야 하네 해야 하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교실 안의 지친 눈빛 누우런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공부만 해야 하네 해야 하네

- 학생 작품 <우리의 봄 · 여름 · 가을 · 겨울>44)

위의 작품은 <사계>라는 대중가요를 원 텍스트로 하여 학생들의 일상을 내용으로 한 차용에 의한 모방적 패러디 시 작품이다. 원 텍스트의 구조나

44) 가야여자중학교 2학년 1반 천해인 학생 작품

운율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나, 그 원 텍스트 자체가 아주 시적인 리듬감을 지니고 있어서 한편의 시로도 손색이 없다.

V V V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V V V
 하얀 나비/ 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V V V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V V V
 미상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우선 원 텍스트의 1절을 살펴보면,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는 원래 구문적으로 ‘꽃/피어도’라는 기본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다른 부분들이 제한·수식적으로 첨가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첫 행의 기본리듬에 들어있는 구조적 강박부 ‘꽃’과 ‘피어도’는 첨가부 ‘빨간’, ‘노란’, ‘꽃밭 가득’ 등을 흡수하게 되어 이런 방식이 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전반 두 행은 주어가 반복되고, 후반 두 행은 용언이 반복된다. 그래서 각각의 주어부와 서술부들이 비슷한 길이의 소리값을 가진다고 볼 때, 위 노래말은 3음보의 율격을 이룬다.

∨ ∨

꽃/ 피어도

∨ ∨

나비/ 날아도

∨ ∨

바람이/ 불어도

∨ ∨

미성은/ 돌아가네

각 부분은 구조적인 강세를 띠게 되고, 위 4행은 각 행을 이루는 자수가 1행: 4음절, 2행: 5음절, 3행: 6음절, 4행: 7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 기본 구조가 마지막 행을 향해 자수율적으로 상승한다.

꽃 피 어 도

나 비 날 아 도

바람 이 불 어 도

미성은 돌 아 가네

위의 4행은 소리의 내적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피’의 1모음, 그것은 ‘날아도’와 ‘불어도’, ‘돌아가네’처럼 각 행의 주어를 서술부는 단어의 첫음절 모음으로 존재하여 끝행의 ‘미’‘싱’으로 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1, 2행의 주격조사 ‘(꽃)이’나 ‘(나비)가’의 생략과 3행

의 주격조사 ‘(바람)이’의 쓰임은 모두 필연적이다.

문장의 통사적 횡축상에서도 1모음의 ‘미싱’을 향하는 모습도 재미있다. 즉, 1행 서술부의 첫음절 ‘피’에서 시작하여 2,3행 주어부의 끝음절 ‘비’와 ‘口이’를 거쳐, 4행 주어부의 첫 두 음절 ‘미싱’에서 울리고 있는 것이다. 미싱의 반복성은 들리는 바와 같이 ‘도’, ‘돌’이라는 음절의 도움을 받아 그 의미를 원색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돌아감, 이것은 미싱의 존재이유인 동시에 사계의 본질로서 이해되며 이런 점에서 형태소 ‘도(+르)’는 이 노래말의 중요한 소리인 동시에 의미까지 되는 것이다.⁴⁵⁾

2) 대중가요 텍스트의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

(1) 준비단계

준비 단계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로서, 학습자들이 선정된 대중가요 텍스트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이다. 원 텍스트의 감상이 단순히 노래를 익히거나 가사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교사는 원 텍스트의 주제나 구조 등에 대한 감상의 수준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조력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어려워 할 수도 있지만 패러디의 특성상, 패러디 되는 원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이러한 감상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패러디하려고 하는 원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변형 또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 창작 방법에 대해 간단히 교사가

45) 김활성, “민족음악의 다른 끝, 음악생태학”, 『민족음악의 이해』 9권 민족음악연구회, 2001, 112~116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원 텍스트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여 대립되거나, 혹은 왜곡시키는 이른 바, 동화(同化)가 아닌 이화(異化)시켜 패러디 시를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패러디스트들이 쉽게 쓰는 방법으로, 문체나 구조, 통사적 측면을 모방함으로써 동일성을 차용한다. 하지만 문체나 리듬이나 가락 등의 형식면을 모방하고 차용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원 텍스트를 변주시켜 원 텍스트나 원작자의 해석적 관점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킨다.

(2) 발상 및 구상 단계

발상 및 구상 단계에서는 대중가요 감상을 통해, 선택한 소재에 관한 쓸 거리를 떠올려 내용을 구상하도록 한다. 즉, 소재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떠올려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아이디어 발상을 도와주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이들 방법 중에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인정 받고 있다. 브레인스토밍 활동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모아 마인드 맵을 작성함으로써 발상을 마무리하게 한다. 원 텍스트에 반응하여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반영적 패러디 시를 구상하도록 한다.

(3) 시 쓰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발상 및 구상 단계에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시를 쓰는 단계이다. 시를 쓸 때는 미사여구와 아름답게 포장한 시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변용적인 패러디 시는 일단 노래의 가사를 수용하되, 이것을 변형하여 재구조화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재구조화하여 원 텍스트를 패러디 시로

형상화할 때는 앞에서처럼 모방적 차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시화해서 드러내는 것임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킨다. 교사는 가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일정한 내용의 반복과 나열, 대구 등을 고려하여 변용적인 패러디 시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반복은 원 노래텍스트의 가사가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나열은 계속해서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병치, 대구는 형식상 절이나 구가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지고 텍스트 속에서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원 텍스트가 지니는 가사의 구조, 어조의 구조를 통하여 창작 주체의 관점에 의해 연과 행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패러디해 나갈 수 있다.

(4) 다듬기 단계

다듬기 단계에서 가장 우선하는 일은 학습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교사나 친구들 조언과 비평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초고를 동료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논평과 충고를 얻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시의 표현적 기교가 상투적이지 않는지, 단순한 모방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학습자의 자기 반영성을 통한 내용의 흐름을 보이는지를 살피게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이러한 점검을 통해 수정할 부분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초고로 작성된 시를 지속적으로 고치도록 유도한다.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1>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A
 이 땅의 피울음 있다

부등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의 핏줄기 있다] A'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B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 벌판] B'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C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C'

-노래를 찾는 사람들/ 문승현 작사 <광야에서>⁴⁶⁾

흐르는 땀을 닦으며
러닝머신을 뛰는 이유 있다

배고픈 배를 부여 잡고서
참아내는 이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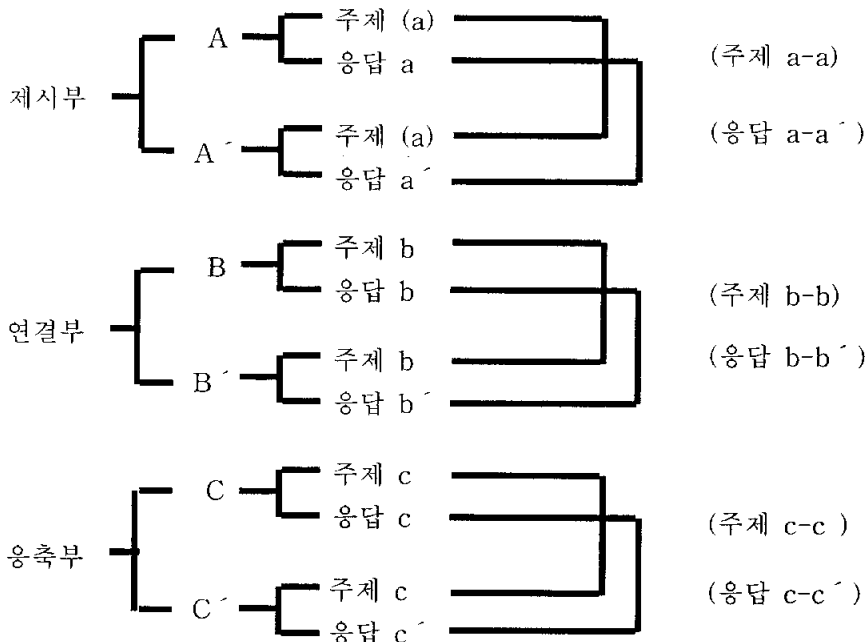
달덩이 얼굴에서
아줌마 팔뚝까지

34인치 허리에서
두꺼운 허벅지까지
내가 어찌 살을 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굶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시 뛰는 러닝머신 위에서

46)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 (1989)에 수록

위의 학생 작품은 원 텍스트인 <광야에서>라는 민중가요를 패러디한 것이다. 원 텍스트인 <광야에서>는 대중성의 집단적 성격이 요구하는 간결한 노래구조의 원리(제시→연결→응축)로 되어 있다. 이러한 원 텍스트의 노래구조에 학생들의 일상생활 경험인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순하고 간결한 노래구조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은, 시 창작이라고 하면 어렵고 따분하게만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손쉬운 방법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는 좋은 모방적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원 텍스트의 노래구조를 패러디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은 시의 구조나 운율 그리고 이미지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표-4> 주제-응답의 양식

원 텍스트의 노래구조를 건물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면 제시부는 ‘터 닦기’, 연결부는 ‘기둥 세우기’, 응축부는 ‘지붕엮기’로 그 윤곽을 세 등분하여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⁴⁸⁾에서와 같이 A-A’, B-B’, C-C’로 이어지는 6개의 각 구는 다시 그 내부에 4마디 단위의 최소매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최소매듭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초단위로서 ‘벽돌 한 장’과도 같다. 동시에 그 최소단위는 동일하게 ‘주제-응답’이라는 일정한 질서대로 편재되어 있다.

응답 a와 a’를 대립체로 하여 동일하게 2회 반복되는 주제 a는 제시부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 악곡 전체의 성격을 집약하는 중심이 된다. 제시부는 이 중심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주된 임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 a는 제시된 주제가 한번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가교의 역할이며, 응답a’는 “이 정도면 충분히 주제감, 주제의식이 강조-확립되었다”는 판단에 의해 제시부의 역할이 끝났음을 매듭짓고, 종결시키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연결부, 응축부 역시 이러한 ‘주제-응답’ 관계의 질서를 통일적으로 따르고 있다.

48) 김창남 외, 『노래』, 실천문화사, 1993, 112~116면.

악곡구조			노랫말구조
제시	A	주제 a 응답 a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울음 [있다]
	A'	주제 a 응답 a'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의 핏줄기 [있다]
연결	B	주제 b 응답 b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B'	주제 b 응답 b'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별관[(까지)] *생략되어 있음
응축	C	주제 c 응답 c	우리 어찌 가난 [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 [하리요]
	C'	주제 c 응답 c'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표-5> 악곡구조와 노랫말구조의 비교

또한, ‘제시→연결→응축’의 기본구조는 한층 간결한 ‘반복과 대조의 질서’를 노랫말에 부여함으로써 노랫말의 형상과 이미지를 선명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먼저 노래구조와 노랫말 구조가 가시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일정한 ‘질서’가 눈에 뜨인다. 제시부의 ‘~에서 ~까지’, 그리고 응축부의 ‘~하리요’ 등의 어절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어절들은 노래구조의 ‘제시→연결→응축’ 질서와 결합되어 노랫말의 형상을 한층 뚜렷하고, 가시적인 윤곽으로 돌출해 낸다.

제시부의 “이 땅의 피울음”과 “하얀 옷의 핏줄기”라는 ‘분단현실’의 두 형상은 노래의 반복구조와 노랫말 어절의 반복질서—반복된 ‘~있다’에 주목할 것—에 의해 엮어지는 바, 앞의 것에 뒤의 것이 구축되는 ‘형상의 발전-구체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즉 노래의 주제를 선명히 제시하기 위해 편제된 ‘주제-응답’의 반복질서와 결합되어 노랫말의 두 형상도 뚜렷한 이미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연결부에서는 이 형상을 “동해에서 서

해까지, 남도에서 만주별관까지”—이때 만주별관‘까지’의 어미는 노랫말의 잣수를 악곡과 맞추기 위해 생략된 것으로 본다—확장시킨다.

분단현실을 이겨내려는 민중의 의지가 천지에 가득 차 오르는 것을 노랫말과 구조의 ‘연결부’에 의해 체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로 모아져 응축된 구조와 노랫말의 형상을 응축-감정의 파고를 절정에 이르게 한다.⁴⁹⁾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2>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얹매이긴 우린 싫어요		A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깡깡발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	└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	B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하늘 아래로	└	

떠나요 둘이서 힘들게 별로 없어요	┌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A'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	

49) 김창남 외, 위의 책, 121~122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

┌
B'
└

- 최성원 노래/ 최성원 작사 <제주도의 푸른 밤>⁵⁰⁾

멈춰야 해요

모두들 힘을 모아서

우리의 푸른 별 지구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우린 싫어요

┌
A
└

교만과 미움과 자연 파괴

무모한 전쟁보다는 우리의 보금자리 지구를 지켜요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우리 함께 나누어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B
└

멈춰야 해요

우리의 푸른 별 지구 위해

┌
C
└

멈춰야 해요

미국과 이라크 함께 손잡고

우리의 푸른 별 지구 위해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했어요

┌
A'
└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

50) 최성원 1집(1998)에 수록

전쟁의 황폐함보다는 지구의 평화를 원해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전쟁 없는 세상 바래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B'

멈춰야 해요
 평화로운 지구 위해

┌
 C'

- 학생 작품 <우리의 푸른 별>⁵¹⁾

원 텍스트인 <제주도의 푸른 밤>은 구어체의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방식과 비교적 단순한 구조(ABA'B')와 도시의 삭막하고 찌들린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현실 도피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대중가요이다. 이러한 원 텍스트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변형하여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을 소재로 한 학생의 패러디 시 <우리의 푸른 별>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를 원 텍스트의 변형된 구조(ABCA'B'C')에 담고 있다. 원 텍스트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거기에 학생 나름의 현실반영과 생각을 담아 내고 있으며, 원 텍스트의 구조를 내용 구성에 따라 연과 행 구분을 시도하고 있어 참신함이 엿보인다.

시는 대체로 영감에서 얻어진 것이 지적 작업에 의해 형상화되는 두 과정을 거친다. 시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 창작은 전자보다 후자의 것, 곧 지적의식의 상호작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시에서는 현실 체험의 대상에서 얻어진 순간적인 착상, 발상, 영감을 주재료로 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시의 중심이미지를 형성하여 한 편의 시가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영감에서 비롯된 정서적 질료가 떨어져가면서 대신 지적 의식이 개입된다. 따라서 패러디 시 창작은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떠올리며 패

51) 가야여자중학교 2학년 6반 홍오휘 학생작품

러디 시를 써 나가면 된다.

3) 대중가요 텍스트의 혼성모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

(1) 준비 단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로서, 학습자들이 선정된 대중가요 텍스트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이다. 혼성 모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하나의 원 텍스트만을 고집하지 않고, 둘 이상의 텍스트를 끌어와 대량 복제하거나 과감하게 발췌 혼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텍스트의 감상을 통해서 자신의 패러디 시 창작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혼성 모방에 의한 패러디 시 창작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혼성 모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원 텍스트의 창조적 권위와 규범성을 부정하고, 원 텍스트를 대량 복제하고 과감하게 발췌 혼합함으로써 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규범을 대중화시키는 방법이다. 패러디는 꼭 하나의 원 텍스트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원 텍스트를 끌어오기도 한다. 바로 하나의 노래텍스트가 아닌 둘 이상의 노래텍스트를 끌어와 혼성모방 또는 중성모방을 하는 패러디 시 쓰기가 패스티쉬(pastich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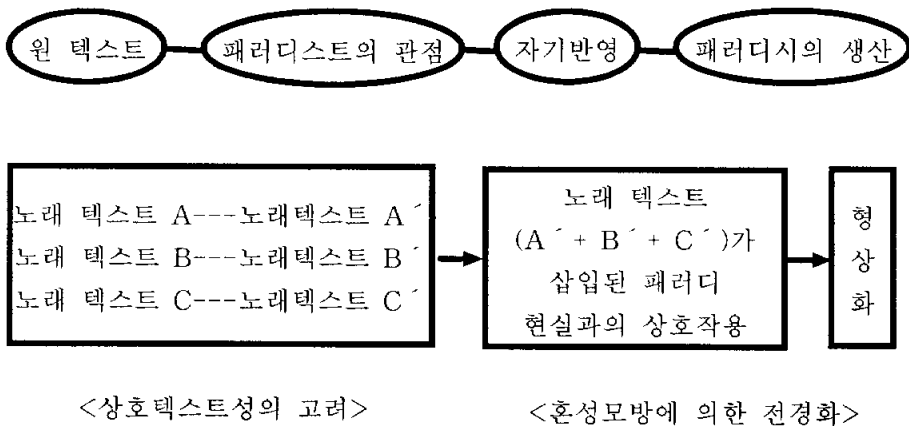
(2) 발상 및 구상 단계

원 텍스트의 관점을 전복시키거나 비틀어 버리는 등의 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학습자들의 자기 반영성이 복합되어 내적 정련화의 과정이 이

루어지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교사는 원 텍스트가 가지는 신세대 음악의 다양한 양상, 이를테면 신디사이저의 이미지나 빠른 뮤직 댄스의 율동, 악기의 반주나 반복되는 후렴 등 모든 것이 원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즉, 음율의 청각적 텍스트나 공연상의 현란한 영상 시각물이 혼성 모방적 언어로 패러디의 질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3) 시 쓰기 단계



<표-6> 혼성모방 패러디 시 쓰기 과정 I

<표-6>⁵²⁾는 혼성 모방 패러디 시 쓰기 과정으로써, 대개 혼성 모방의 패러디 시 쓰기는 2-3개의 노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노래를 혼성 모방하는 패러디 시 쓰기는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가사를 포함한 타 예술장르인 기성품을 모방하고 그 모방 대상을 의식적으로 전경화

52) 문광영, 앞의 논문, 30면.

시킴으로써 둘 내지 세 개의 텍스트 간 대화성이 확보된다. 여기에서 학습자들은 원 텍스트를 해석하고, 비평하게 되는데 바로 상호 텍스트성을 통한 대화나 자기 반영성이 드러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위에서 제시한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혼성 모방에 의한 시 쓰기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4) 다듬기 단계

다듬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쓴 시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인 고쳐쓰기와 최종적으로 글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편집하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시의 내용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시의 형식적인 면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 창작 단계는 조정하기를 통하여 그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고로 작성된 시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선택된 낱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발상 및 구상 단계로 돌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의 주제를 살핀 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낱말을 찾아 대치할 수 있다. 즉, 조정하기 과정은 자신의 감흥이나 느낌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쓰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된다.

<혼성 모방에 의한 페리디 시-1>

①님은 갔습니다

— A

- 한용운 「님의 침묵」 중에서

②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산다 할 것을

┌
|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B

마음주고 눈물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

- 조관우 노래/ 신중현 작사 <님은 먼 곳에>⁵³⁾ 중에서

③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
|

C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

- 김범수 노래/ 채정은 작사 <하루>⁵⁴⁾ 중에서

아, 선발은 왔습니다

—

A'

선발한다고 말할 걸 그랬죠
선발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
|

선발한다고 말할 걸 그랬죠
마무리하다 못하는 선발

B'

53) 조관우 2집 MEMORY에 수록

54) 김범수 1집 Remember(2000)에 수록

포볼주고 홈런 맞고
방어율마저 높아져갔죠

」

홈런이 맘 또 아프게 해요
포볼이 날 또 울게 하네요

」

C'

그렇게 열광했던 팬들도 한물 갔다며
TV를 냉정하게 꺼버리네요

」

아, 팬들도 갔습니다.

— A''

- 학생작품 <박찬호의 꿈은 먼 곳에>55)

<혼성모방에 의한 패러디 시-2>

①니가 미웠어 날 몰라주는 너 또 말도 못해 안달하는 나도 미웠어
난 언제나 널 보면 가슴 시린 설레인 뿐인데 너는 그렇지가 않았어 A
야속했었어 세상에서 가장 이쁜 널 다 가지고 싶었어
난 그렇게 널 보며 매일매일 가슴만 졸이는 짝사랑이 되어 버렸어 』

- 유승준 노래/ 이승호 작사 <내가 기다린 사랑>56)중에서

②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정말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

55) 가야여자중학교 2학년 1반 신미선 학생 작품

56) 유승준의 Best And J Duet Collection Cd1(2001)에 수록

짜증나 미치겠어

B

..... 중략

그 잣 힙합웃과 귀걸이가

애들에게 무슨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

- DJ DOC 노래/ 이하늘 작사 <모르겠어요>⁵⁷⁾중에서

청소년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같이 교육문제

아니면 학교 폭력문제 봐라 나는 참견 말고 대중 가요 탓 말고 huh

C

..... 중략

그러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들만의 축제

」

- 조PD 노래/ 조PD 작사 <BREAK FREE>⁵⁸⁾중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 자기 반영적 텍스트

선생님이 미웠어

우리를 몰라주는 선생님이 미웠어

현실이 싫었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싫었어

」
A'

」

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정말 모르겠어

왜 학교에선 힙합바지를 못 입게 하는지

그 잣 힙합바지가 우리에게 무슨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모르겠어

」
B'

」

57) DJ DOC 4집(1997)에 수록

58) 조PD 1집(1999)에 수록

청소년 문제 교육문제

스스로 하고 말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들만의 축제

」C'

」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 자기 반영적 텍스트

- 학생 작품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⁵⁹⁾

위의 두 학생 작품에서 먼저 <패러디 시-1>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한 행과 신중현의 <님은 먼 곳에>와 채정은의 <하루>라는 대중가요의 노랫말의 일부를 짜깁기 한 혼성모방에 의한 패러디 시이고, <패러디 시-2>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자기 반영적 텍스트와 이승호의 <내가 기다린 사랑>과 이하늘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PD의 <BREAK FREE>의 랩 일부분을 짜깁기하여 하나의 시로 구성한 것이다. 학생들의 패러디 작품은 각 연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로 다른 대중가요의 노랫말(A+B 또는 A+B+C)에 자기 반영적 텍스트를 첨가·보충하거나 대응·대립시켜 학생들이 의도한 현실을 반영한 자기반영성의 패러디 시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패러디 시-2>에서는 각 연의 각 행들에서 음위율⁶⁰⁾을 맞추려고 한 나름의 노력이 엿보인다.

59) 가야여자중학교 2학년 5반 신혜미 학생

60) 나의 어릴 적 끝도 없이 가다

지쳐버려 무릎 꿇어버린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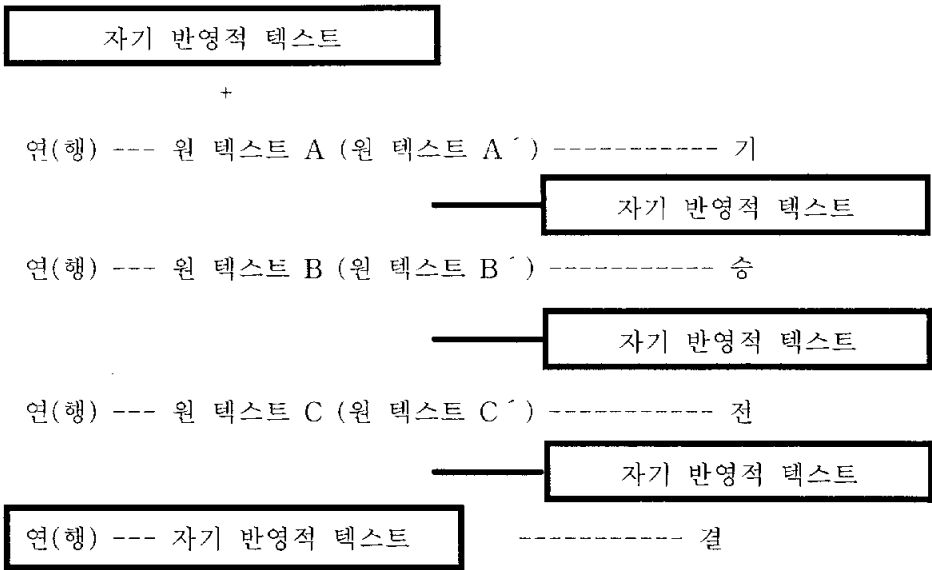
옛날 너무나도 고운 모래 파다

이젠 모래 깊은 상처 위의 깊은 상처 하나

행복하고 사랑했던 그대와 나

생각 하고 웃음 짓던 꿈도 많아

그런 모든 것들 저 큰 파도에 몸을 맡겨 어딘가 가더니~이젠 돌아오지 않아



<표-7> 혼성모방 패러디 시 쓰기 과정Ⅱ

<표-7>61)의 패러디 시의 형태는 4단구성의 한 양식을 예로 든 것인데,

바다앞에 내 자신이 너무 작아
 흐르는 눈물 두손 주먹쥐고 닦아
 많은 꿈을 꾸었는데 이젠 차마
 날 보기가 두려워서 참아
 그때 내가 바라보던 것들 아파 볼수 없겠지만 그래도 눈을 감아
 나의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이젠 두눈 감고 다시 한번 달아

패닉 <내 낡은 서랍속의 바다>

이외에도 대중가요 중에는 랩가사를 이용하여 시의 운율적인 요소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노래들이 많다. (GOD의 <관찰>, <어머니께>, 이소은의 <작별>, 싸이의 <새>, 서태지의 아이들의 <난 알아요>, 자우림의 <낙화>, <여인>, 한스 밴드의 <오락실>,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등)

61) 문광영, 앞의 논문, 31면.

대개 이러한 경우는 전반부에서는 시의 모티브가 되는 면을 상정할 수 있고, 중반부에서는 전반부의 시상이 발전하고, 후반부에서는 결구로 맺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렇듯 어떤 틀에 꼭 얹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령 자기 반영의 시구가 원 텍스트 앞에 올 수도 있고, 또 각각A(A')와 B(B') 사이에서도 삽입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통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각각의 원 텍스트를 내면화하여 시상을 전개시킬 수도 있다. 나아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래가사에 머물지 않고 리듬의 언어화, 율동의 언어화 같은 것도 원 텍스트로 삼을 수도 있다.

이처럼 패스티쉬에 의한 패러디 시를 쓸 경우 2-3개의 음악텍스트나 이와 유사한 텍스트를 원전으로 삼게 되는데, 형태적으로 이와 유사하게 전개할 수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운율의 맛을 강조해서 지도하고자 할 때는 음악텍스트가 지닌 대구나 대칭, 음수율, 후렴 등을 그대로 모방하지만, 그러나 자유시로서의 시적인 면을 살리려면 음악텍스트에 기초하되 형태, 구조면에서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음악텍스트를 수용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이 노래의 단위인 분절을 패러디스트가 하고자 할 때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음악텍스트에서의 하나의 절은 시에서 여러 개의 연으로 패러디하여 나누어 쓸 수도 있고,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음수율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음보율도 마찬가지이다.)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음악텍스트가 갖는 음수율로서의 대구는 꼭 유념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음수율에 관계하는 대구가 정형의 틀을 갖는다고 하면 무음수율은 행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자유시의 형태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 텍스트가 시 텍스트로의 전이되는 과정에서 혼성모방에 의한 패러디는 각기 엉뚱한 텍스트들이 결합되고 변용됨으로써 언어유희의 미학과 충격적인 이미지의 효과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이질적인 텍스트

들의 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과 행, 연과 연의 결합에서의 '긴장(tension)의 미학'이 탄생되는데, 이는 상상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에 흥미를 가지며, 시 쓴 맛을 길러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패러디시의 복제성, 우연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시답게 하는 기법으로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의 기법을 적용하여 연과 행 단위에서 긴장미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알고 있듯이 낯설게 하기는 러시아 형식주의자 쉬클로프스키(Shklovsky)가 논의한 것인데, "어떤 언어적 표현에 의해 낯설게 만들면 그 사물을 지각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대신 갖가지 복합적인 정서적, 심리적 내용들이 형성되어 지각의 한계를 탈피하여 사물의 풍성한 본질적 내용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낯설게 하기는 낱말이나 구, 절보다는 둘 이상 선정된 원 텍스트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거나, 창작 주체가 의도적으로 변용한 텍스트 간에 일어날 수 있다.

3. 기대되는 효과

첫째, 모방적 차용에 의한 패러디 시는 원 텍스트의 권위나 규범을 계승하거나 의미를 확장해 가는 경우이다. 이러한 대중가요 원 텍스트의 가사나 어조, 운율의 차용을 통해 학생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시 창작을 시도할 수 있다. 원 텍스트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차용해서 거기에 학생들 자신의 생활경험이나 일상적 내용을 주제로 바꾸면 비교적 간단하게 한 편의 패러디 시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 텍스트는 낯설은 언어와 과격성으로 어느 정도의 지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감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대중 가요 텍스트는 어찌 보면 익숙하고 편안한 텍스트이다. 그것은 대중

가요 텍스트가 경쾌하며, 친밀성·유희성·유연성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감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패러디는 독자의 설득력을 유발하는 전달방식으로, 원 텍스트가 가진 익숙함을 근거로 독자의 친밀감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패러디 텍스트를 합리화, 정당화시킬 수 있다.

시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운과 율을 든다. 시에서 행의 처음이나 끝 소리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소리로 만드는 압운이나, 음의 강약이나 고저 등을 규칙적으로 반복시키는 율격은 모두 특정한 소리의 규칙적인 반복이 그 기본 원리가 된다. 이렇듯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소리가 반복되게 하는 것이 운과 율을 만드는 원리라면, 이는 음악의 리듬을 만들어 내는 원리인 반복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의 운율적 요소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시의 형식적 요소들을 체득하게 된다.

둘째,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원 텍스트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여 대립되거나, 혹은 왜곡시키는 이른 바, 동화(同化)가 아닌 이화(異化)시켜 패러디 시를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은 노래를 접하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른다. 여기에서 변용적인 패러디 시는 일단 노래의 가사를 수용하되, 이것을 변형하여 재구조화 한다. 여기에서 재구조화하여 원 텍스트를 패러디시로 형상화할 때는 앞서서처럼 모방적 차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시화해서 드러내는데 가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일정한 내용의 반복과 나열, 대구 등을 고려하여 변용적인 패러디 시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반복은 원 노래 텍스트의 가사가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나열은 계속해서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병치, 대구는 형식상 절이나 구가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지고 텍스트 속에서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러한 음악텍스트가 지니는 가사의 구조, 어조의 구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주체적인 관점에 의해 연과 행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패러디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셋째, 혼성 모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원 텍스트의 창조적 권위와 규범성을 부정하고, 원 텍스트를 대량 복제하고 과감하게 발췌 혼합함으로써 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규범을 대중화시키는 방법이다. 이처럼 패스티쉬에 의한 패러디 시를 쓸 경우 2-3개의 음악텍스트나 이와 유사한 텍스트를 원전으로 삼게 되는데, 형태적으로 이와 유사하게 전개할 수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운율의 맛을 강조해서 지도하고자 할 때는 음악텍스트가 지닌 대구나 대칭, 음수율, 후렴 등을 그대로 모방하지만, 그러나 자유시로서의 시적인 면을 살리려면 음악텍스트에 기초하되 형태, 구조면에서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다. 서로 이질적인 텍스트들의 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과 행, 연과 연의 결합에서의 '긴장(tension)의 미학'이 탄생되는데, 이는 상상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에 흥미를 가지며, 시 쓴 맛을 길러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패러디 시 쓰기와 같은 작문행위는 고등정신능력의 훈련이자 하나의 메타 언어적 시 쓰기이다. 따라서 대중가요를 통한 패러디적 시 창작에서 학생들은 원 텍스트의 비평가이자 수용자로서의 독자이며, 동시에 작가의 입장에 서게 됨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삶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는 동시대의 문화에 대한 비평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인지적 관점에 이르는 폭넓은 언어활동이 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 창작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한 대안으로 10대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먼저 현행 시 창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에 시 창작교육의 대중가요 수용의 필요성, 그리고 패러디의 시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실제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지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의 지도원리와 유의점, 대중가요 패러디 시 창작 지도 모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패러디의 세 가지 방법에 따라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을 살펴 본 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몇 편의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중가요 원 텍스트의 가사나 어조, 운율의 차용을 통해 학생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시 창작을 시도할 수 있다. 원 텍스트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차용해서 거기에 학생들 자신의 생활경험이나 일상적 내용을 주제로 바꾸면 비교적 간단하게 한 편의 패러디 시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음악텍스트가 지닌 대구나 대칭, 음수율, 후렴 등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지만 형태, 구조면에서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다. 서로 이질적인 텍스트들의 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과 행, 연과 연의 결합에서의 '긴장(tension)의 미학'이 탄생되는데, 이는 상상력뿐만이 아니라 언어

에 흥미를 가지며, 시 쓴 맛을 길러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음악텍스트가 지닌 풍부한 운율적 요소를 통해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따분하고 지겹게만 들리던 시의 형식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넷째, 학생들은 대중가요 텍스트를 단순히 모방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가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음악텍스트가 지니는 가사의 구조, 어조의 구조를 학생들의 주체적인 관점에 의해 연과 행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보는 과정에서 시와 음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게 된다.

다섯째, 대중가요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변용에 의한 패러디 시 쓰기는 시 창작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가요를 비롯한 여러 대중문화를 접함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열린 텍스트로서 패러디 시 쓰기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대중가요를 이용한 패러디 시 쓰기가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이를테면 교육과정의 문제, 그리고 교사들의 시관이라든가, 시에 대한 미학적 인식 등 이런 문제들이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작품으로만 완성된 시, 시 쓰기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시 교육, 나아가 시 쓰기란 어려운 것이고, 신비스러운 것이며, 타고난 재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등, 시 교육의 난맥상을 하나 둘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국어과 교육에서의 학생들에게 시 쓰기는 꼬마 문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함양과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둔 정서적 글쓰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언어 조형 능력으로서 미술시간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자유스럽게 그림을 그려보듯 다양하게 시를 만들어 보는 하나의 언어 조형놀이가 될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습작시나 실

협시를 쓰는 정도라고나 할까, 시 쓰는 즐거움을 갖게 하고 또 학생들의 문화와 관련하여 열린 시 교육으로의 방향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 쓰기의 다양한 모색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생활국어 1-1』, 대한 교과서, 2001.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두산, 2003.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하)』, 두산, 2003.
- 김대행 외, 『국어생활』, 교학사, 2003.
- 김윤식 외, 『문학(상)』, 디딤돌, 2003.
- 구인환 외, 『문학(하)』, 교학사, 2003.
- 유하,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 문학과 지성사, 1995.

<자료 음반>

- 김범수 1집, 소니 뮤직, 2000.
-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 서울 음반, 1989.
- 노래를 찾는 사람들 4집, 서울 음반, 1994.
- DJ DOC 4집, 킹 레코드, 1997.
- 조관우 2집, 도레미 레코드, 1999.
- 조성모 3집, 도레미 음반, 2000.
- 조PD 1집, 예당음향, 1999.
- 유승준 Best And J Duet Collection, 신나라 레코드, 2001.

최성원 1집, 서라벌 레코드, 1988.

<단행본>

김대행,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1993.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김창남 외, 『노래』, 실천문학사, 1993.

박인기 외,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0.

이동연,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겨레신서, 1995.

이상현, 『아동문학 강의』, 일지사, 1991.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1999.

이영미,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2002.

린다 허천(김상구·윤여복 공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3.

M. H. Abrams(권택영·최동호 공역), 『희작』, 1985.

Ocatavio Paz(윤호병 역), 『Children of Mire』, 현대미학사, 1995.

Robert Pattison, The Triumph of Vulgarity: Rock Music in the Mirror of Romanticism, 1999.

<학위 논문 및 연속 간행물>

강현두외, 「공단 근로청소년의 문화수용과 문화의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김경복, “90년대 시의 패러디, 페스티쉬”,
『오늘의 문예비평』 여름 통권9호, 책읽는 사람들, 1993.

김대용, 「한국 대중문화의 교육적 의미」, 충북대학교.

- 김대행, “노래로서의 시를 위하여”, 『현대시』 3호, 한국문연, 1996.
- 김명식, 「창작기능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성진, 「국어교육의 대중문화 수용을 위한 소론」,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권 5호, 1998.
- 김승환, 「대중문학과 국어교육」, 한성대학교 국어교육학회 발표문, 2000.
- 김종한,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대중문화의
교육적 의미」,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주향, 「시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준오, “대중문화와 탈승화”, 『현대시』 10호, 한국문연, 1996.
- 김은형, “나의 시수업” 제14차 한국문학교육학회 발표문, 1999.
- 김창원, 「대중가요의 국어교육론」,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가을 학술 발표대회, 2000.
- 김현주, 「청소년의 대중음악 수용방식: 능동적 수용자」,
『사회과학연구』 13호, 중앙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0.
- 김현수, “80년대 이후 대중음악 분석의 현단계와 그 유효성”,
민족음악연구회.
- 김혜경, “TV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19호, 민족음악학회, 2000.
- 김활성, “민족음악의 다른 끝, 음악생태학”,
『민족음악의 이해』 9권 민족음악연구회, 2001.
- 곽동훈, 「시 맛보기 지도의 원리와 방법」, 배달말 교육 제19호, 1998.
- 권택영, “패러디, 패스티쉬 그리고 독창성”,
『현대시사상』 서울: 고려원, 1992.
-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문광영, 「대중음악 텍스트 활용한 패러디 시 창작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논총』, 인천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8권 1호, 2000.
- 문선영,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키치현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문풍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중음악」, 『학술저널』, 평택대학교 9권 2호, 1997.
- 방인태, “국어교육과 시의 상호성”,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4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98.
- 서영호, 「시 흉내내어 짓기 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손태도, “민요와 대중 가요”, 『한국학 논총』 28권, 2001.
- 손은희, 「패러디를 이용한 시 창작교육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손화영,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적 상호텍스트성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희복, “시·음악·음악성”, 『현대시』 한국문연, 1995.
- 이건용, “시, 노랫말, 노래”, 『민족음악』 1집, 민족음악회, 1990.
- 유영희, 「메타언어적 시 쓰기와 창작교육의 가능성」, 『선청어문』 23집, 1995.
- 유영희, 「패러디를 통한 시 쓰기와 창작교육」, 『국어교육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5.
- 이상섭, 「문학공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세계의 문학』 통권74호, 1994.
- 이영미, “대중가요의 재미와 보수적 욕망”, 『문학과 교육』, 1999.
- 이영미, 「문학과 대중가요」, 『문학과 교육』 제9호 문학교육연구회, 1999

- 윤한택, 「시짓기 중심의 시학습 지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의종, 「중등 국어 시 영역의 공감각 표현지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임덕배, “우리, 생각하며 노래 부르자”, 『우리교육』, 1996.
- 원구식, “말스러움에서 노래스러움으로의 이동”, 『현대시』 7호, 1997.
- 장동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패러디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끝별, 「한국현대시의 패러디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조운동, 「대중가요 가사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병우 외, 「매체언어의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0.
- 최유준,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낭만음악』 여름호, 1999.
- 홍윤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